매일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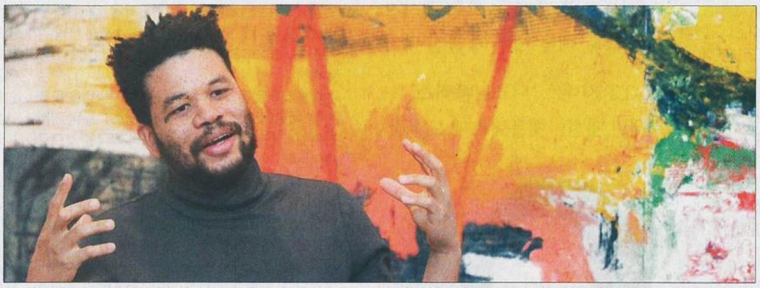
`제2의 바스키아` 오스카 무리요 "내 에너지를 작품에 폭발시킨다"

November 30, 2018 I 전지현 기자

"내 에너지를 작품에 폭발시킨다"

'제2의 바스키아' 오스카 무리요

콜롬비아서 태어나 런던 이민
중학교 교사 박차고 남미여행
비행기와 이주가 작업 동력



오스카 무리요가 서울 국제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pulsating frequencies(진동하는 주파수)' 앞에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거대한 검은 캔버스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를 점령했다. 전시장을 가로지르는 줄에 걸려 있거나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전시장 입구 천정에서도 매달려 일렬로 축 늘어져 있었다. 강렬한 유화 물감 냄새에 어지러웠다. 콜롬비아 출신 작가 오스카 무리요(32)는 "점점 확장돼가는 내 작업 세계를 상징하는 설치물"이라고 설명했다.

박음질로 몸집을 불린 캔버스는 작가 의도에 따라 펼칠 수도 접을 수도 있다. 고정되지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젊은 작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검은색은 모든 것을 덮는다. 작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마저 흡수한다.

검은 옷을 입은 작가는 "3년 전 밤 비행기 안에서 느낀 어둠과 죽음, 상실, 애도를 검은색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날 자정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아제르바이잔 바쿠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오랫동안 이륙이 지연됐다. 화물칸에 실린 시신 확인 절차가 길어진 탓이었다. 승객들은 짜증과 걱정에 휩싸였고 어린아이들은 울었다. 뒤늦게 출발한 비행기는 조지아에 가까워지자 급격한 우회전을 했다. 당시 조지아가 아제르바이잔과 분쟁을 겪고 있어서다.'

작가는 "비행 경로가 정치적 이유로 달라지면서 화물칸 시신을 생각했다. 지상을 떠나서도 두 나라의 갈등은 계속됐고, 누군가의 죽음과 동행해야 했다. 어둠 속에서 화해와 화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행과 이주는 그의 작품 동력이기도 하다. 1997년 11세에 가족과 함께 런던에 이민간 그는 웨스트민스터 대학과 영국왕립예술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공부했다. 중학교 교사로 취직했지만 런던에 갇혀 있는 삶이 답답해 2009년 사표를 제출한 후 고향인 남미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런던에서 자라고 일하면서 살았지만 나는 콜롬비아 출신이다. 도망칠 곳이 있었다. 그 여행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여러 나라를 떠돌 때 비행기는 작업 스튜디오가 됐다. 2012년부터 그 안에서 그린 드로잉과 낙서 등을 모아 'flight(비행)' 연작을 발표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에서도 줄에 대롱대롱 매달아놨다. 그는 "여행과 출장이 잦아지면서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내 작업을 멈춰선 안됐다. 기내에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서 새로운 작업 플랫폼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시장에 쳐진 검은 장막 정글 틈에서 물감으로 휘갈긴 그의 대형 회화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다. 숫자와 지도, 적십자 우표, 돼지 등 이미지가 혼재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흘려버린 에너지의 궤적이다. 2010년 시작한 'catalyst(촉매제)' 시리즈에선 선들이 무질서하게 얽혀 있다. 작가는 "내 안에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폭발시킨 흔적"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천재 낙서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를 닮은 외모와 작품으로 20대에 세계 미술계 주목을 받았다. 4년 전 뉴욕 데이비드 즈워너 갤러리에선 콜롬비아 과자 회사 공장을 재현해 화제가 됐다. 작가는 "맨해튼에 온 콜롬비아인 나를 표현한 작품이다. 생산과 소비, 무역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처음 내한했다. 당시 한국 샤머니즘을 탐구하면서 안양 삼성산에 검은 캔버스를 설치했다. 전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문의 (02) 735-8449

전지현 기자

URL: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748221